

5.27신흥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

제 10회 글쓰기 대회 수상작

우수상 (인상)

제목: 사색

3-9 진\*우

나는 존재한다, 그렇기에 생각한다. 나는 존재하는 것인가? 이 생각은 꽤 유쾌하다. 허나 늘 그렇듯, 내게 유쾌한 것은 다른 이들에게는 불쾌하게 느껴지는 듯하여.

핸드폰과 모니터에 속하는 화소들이 나에게 보내는 전파가 썩 유쾌하듯,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태양빛이 내게 내리쬐는것이 썩 불쾌하듯. 나는 내 방의 창문을 닫고 인공적인 빛에 의지하여 하루를 글로.

물론 사람이 언제나 유쾌할 수 없으며, 언제나 불쾌할 리도 없음을 안다. 그렇기에 나는 불편함을 참으며 태양빛을 쬌며— 내게 편안함을 주는 전파를 피하는 날 또한 있어야 함이다. 유쾌함과 불쾌함을 모아 섞어 백지로 만들어야 내 뇌에 새로운 무언가를 채울 수 있을 터이니.

미안하오, 그저 이리 말하는 것이 익숙해진 따름에. 길길대는 이들의 앞을 무심히 지나갈 정도의 뻘뻘함을 내가 갖춘 덕분이다.

대화는 썩 어색하다. 그렇기에 나와 같은 나이에 찾아와야 할 마땅한 청춘이라는 것도 딱히 없을 것임을 이미 안다. 어쩌면 이미 지나갔을지도. 떠나버린 내 청춘을 그리지는 않는다. 내게는 다가올 미래를 붙잡는 것만으로도 아득하기에 작별이오.

인간은 필히 사회적인 동물이다. 만약 인간이라는 것의 정의가 정녕 저것 하나 뿐이라면 나는 분명 인간이 아닐 것이다. 높게 쳐줘봐야 멧돼지나 산짐승일까. 요즘 시대에 이들을 잘 보지 못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아마 어느 정도 일리는 있을 것이다.

내가 사는 곳은 도시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도시, 시골에 도달했다고 보기에는 편의시설이 많은, 4층을 넘지 않는 빌딩들과 그러한 빌딩들을 가리는 높은 아파트가 줄지어 서있는 곳이다.

수요일과 주말을 제외한 나머지 날들마다 조깅을 하는 이름 모르는 여자가 있는 곳. 내가 집 밖을 나서기 10분 전 즈음에 두 마리의 개들을 산책 시키고자 출발하는 남자가 있는 곳. 내가 집에 돌아오는 타이밍에 맞춰 내 집 문 앞에 전단지를 붙이는 여자가 있는 곳이 내가 사는 곳이다.

아니, 어쩌면 집이라는 단어는 내 집에 썩 적절하지 못한 단어일 수도 있으리라. ‘룸’이라는 단어가 집을 지칭하는 단어는 아닐테니, 아마 집보다는 한개의 방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까.

최근에 내가 자주 가던 등갈비집이 하나 사라진 터에, 유감스럽게도 내가 내 머릿속을 백지로 만드는 과정 중 하나가 사라진 터다. 이것 또한 작별이오, 안타깝기 그지 없으니.

삶이 나를 춤추게 하는 곳으로, 맑아진 마음으로 그윽하기를, 사람들 가슴엔 별이 살고 있다…….

또 다른 과정으로는 등교라는 행위가 있다. 유감스럽게도 나 또한 학생인지라 (모두가 삶을 배워가며 살아가고 있으니 그들 또한 학생이리라.) 대학교에 가 내게는 불쾌한 ‘사회적인 활

동'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인간은 필히 사회적인 동물일테니.

사색이 길었다, 머리를 말릴 시간은 없다. 지금 출발하면 아슬아슬하게 도착할까. 물론 지금 출발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간이다. 하지만 오늘은 걷고자 한다. 버스를 타거나 택시를 타거나 아니면 요즘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전동킥보드라는 것을 이용해도 무방할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걷고자 한다. 단순히 햇빛 아래를 걷는 것 만으로는 머리를 백지로 만들 수 없기 때문일까. 그나마 오늘은 구름이 태양을 가리기에 걷기 쉬운 날일 것이다.

나는 머리카락에서 떨어지는 물을 바라본다. 물방울이 끝에 맺혀 생기는 무게 탓에 머리카락이 구부러진다. 이내 물방울은 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바닥으로 떨어져 처참하고 비참한 흔적만을 남긴채 시야에서 사라진다. 구부러진 머리카락이 다시 펴지고, 펴진 머리카락 끝으로는 새로운 물방울이 맺히기 시작한다. 나는 그것을 잠시 바라보다 조용히 “작별이요”

나는 두 마리의 개들을 산책시키는 남자가 출발하기 1시간 전에 집 바깥으로 나왔다. 인간의 피부 세포는 80일 정도면 전부 물갈이가 된다고 한다. 굳이 피부 세포가 아니어도 대략 6개월 정도라면 대부분의 세포는 바뀌어, 그렇다면 내가 이 공기를 맡는 것은 아마 처음일 것이다. 이전에 이 시간대의 공기를 맡았던 이는 내가 아닌 나였을테니.

어쩌면 이는 우화와도 닮아있으리라. 애벌레는 고치 안에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녹여 진득한 단백질의 수프로 만든다. 이를 기반으로 재구성되는 성충은 과연 같은 존재일까, 아니면 땅에 뿌려진 거름을 통해 자라난 다른 식물일까.

그러한 사색을 즐기는 것도 잠시, 어느새 나는 내가 불쾌해야 마땅한 태양빛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스스로의 위치를 자각하자 이어지던 상념은 끊겼고, 그 이후로는 작별이요.

길은 다양하다. 세상의 모든 길은 결국에는 이어져 있는 길이다. 그러니 나 또한 강의실로 가는 수 많은 길 중 하나를 택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나는 선택이라는 것을 할 수 있다. 빠른 길, 짧은 길, 횡단보도가 별로 없는 길. 내가 선택한 길은 그냥 길이었다. 굳이 특징을 잡아 말하기 어려운 길. 무미건조하고 모든 특징을 다른 길에 뺏겨 이름을 거세당한 길.

걸으며 옆을 바라본다 하나, 둘, 셋, 다섯, 일곱, 여덟. 왕복 8차선 도로. 아니다, 샘을 잘못 하였다. 다시 보니 여섯. 왕복 6차선 도로. 8차선은 이런 애매한 도시에 있기에는 너무 큰 도로다.

그 반대편에 있는 것은 다이소. 여러가지 물건이나 음식들을 싸게 파는 곳이다. 생각해보니 아직 아침을 먹지 않은 듯 하다. 아침을 먹으려면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 물론 이 근처에는 아마 편의점이 있었던 것 같다.

놀랍게도 나는 걷는 것을 (정확히는 걸으며 하는 사색을.) 꽤 좋아한다.

그저 옆드려 있는 것과 내 눈에 쏘아지는 전파에 밀려서 그럴 뿐. 옆드려 있는 동안은 그저

쌓인 피로를 치울 수 있어 유쾌하고, 모니터 앞에서는 내 머릿속의 사색을 바로 글로 변환할 수 있어 유쾌하다. 유쾌하다.

걸으며 하는 사색 또한 유쾌하지 않을 수 없다. 이따금 나는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에 전율하며 손이나 팔을 휘휘 저으며 걸어다니는 것이다.

내게 있어 좋은 점은, 그 모든 장소에서 하는 모든 사색이 전부 다른 내용을 품고 있다는 점에 있다. 나는 그 사색에서 사서였으며, 악사였으며, 밀랍이자, 우편함에 구깃구깃 쌓여있는 우편물이었으며 또한 나였다.

우편함에 구깃구깃 쌓여있는 우편물이 꿈에서 내가 된 것일까, 아니면 내가 꿈에서 우편함에 구깃구깃 쌓여있는 우편물이 된 것일까? 이는 꽤나 유쾌하오. 내가 되어버린 우편함에 구깃구깃 쌓여있는 우편물에 작별이오.

이내 나는 내 옆에 있는 다이소의 옆에 있는 편의점에 당도했다. 머리에서 떨어지던 물은 더 이상 떨어지지 않으나, 나는 내 머리에서 미처 떨어지지 못한 다른 물방울이 비상할까 되려 몸을 움츠렸다. 가게에 들어가는 것이 실례일 듯 하기에 문을 열고 삼각김밥이 좋을 듯 하였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지만 나는 원래 우편물이었으니 대화는 사치이리라, 아무 삼각김밥을 집어 매대에 올려놓은 뒤 아무말 없이 카드를 카드기에 꽂아 넣었다. 이 삼각김밥의 가격은 과연 얼마였을까, 희망소비자가격 기준으로 1300원에서 1700원 언저리이리라 생각했다. 아니면 말고.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으니 그저 사라진 돈에 예의를 차려 쟁취한 삼각김밥은 바로 먹기로 하였다.

참치마요, 나는 참치를 싫어한다.

아가미의 구조가 움직이지 않으면 산소를 받아들일 수 없게 설계되어 있기에, 그나마의 단잠조차 해엄을 치며 단잠을 자야 하는 참이다. 이는 일부 상어나 인간도 마찬가지이기에, 나는 참치였을 때의 기억이 썩 불쾌하다. 인간이었을 때의 기억이 썩 불쾌하다.

다시 길을 나선다. 삼각김밥, 참치와 마요네즈가 적절히 버무려져있다. 먹다보면 형체가 무너져 속재료만이 튀어나와있다. 마치 만두에서 만두피를 빼고 만두속만 골라먹듯 강제로 그리 먹게 되는 것이다. 한 입에 털어넣지 않는 이상 내가 김과 밥과 참치와 마요네즈의 조화를 완전히 느낄 수는 없을것이니 나는 이 삼각김밥을 한 입에 털어넣기로 결정하였다.

맛있다. 하지만 참치가 싫어 그리 썩 선호되는 맛은 아니었다. 무릇 내가 불쾌함이란 다른 이들에겐 유쾌함으로 다가오기에 이는 필히 유쾌한 것이리라.

앞을 향해 건다보니 나오는 골목에서 좌회전을 한 뒤에 횡단보도를 하나 건넌다. 그 뒤에 신호를 잠시 기다린 뒤 삼각김밥을 한 입 베어물고자 하지만 이미 삼각김밥은 내가 전부 먹어 치운지 오래다.

글쎄, 밀랍이었던 나는 어찌다가 녹아 내렸을까.

어쩌면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양초였을수도 있다. 그리고 그것은 나와 썩 어울리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짧은 빛을 위해 스스로를 녹여내는, 정작 그리하여 피워낸 불꽃조차 매우 작으니.

사색이 길었다. 머리카락에서는 더 이상 물이 떨어지지 않는다. 4월의 선선한 바람이 가져간 것일까, 아니면 내게 필히 불쾌한 태양빛이 가져간 것일까. 만약 바람이 가져간 것이라면 그것은 분명 징검다리를 선들선들 밟고 온 봄바람일 것이리라.

또한 내 시간도 가져가버린 탓일까, 나는 어느새 대학교 정문 앞을 지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참으로 유쾌한 시간이 아닐 수 없었다. 쏟아지는 태양빛만 아니었다면 분명 더욱 유쾌하오.

나무로 된, 목조로 된 정문은 지금이 오전 8시 36분 24초, 25초, 26초, 27초.

꽤나 늦게 도착했음을 알아차린 나는 빠른 속도로 천천히 강의실로 향하기 시작했다.

내가 다니는 대학교는 유동인구가 꽤 많은 편이다. 근처에 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가 있어 그런 것일까, 이 시간이면 고등학생들은 이미 등교를 마쳤으니 아마 그건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냥 사람이 많은 것일까? 사람이 왜 많은 것일까? 아마 근처에 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가 있어 그런 것이리라.

41초, 24초, 57초, 3초, 19초.

강의실에 도착했다. 공학생물. 다음교시는 물리화학이다. 들고온 노트북을 펼치고 노트를 펼친다. 난잡한 글이 보인다. 아무래도 노트를 잘못 가져온 듯 보였다. 어쩔 수 없이 노트를 덮은 뒤 시계를 확인한다. 7초, 8초. 2분 정도의 여유가 있다. 얄드린다. 눈을 감는다. 어쩌면 나는 예술품을 만드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을까? 밀랍 인형이나 조각 따위. 굳이 밀랍으로 이루어진 인형이나 조각이 아니더라도 그러한 것들을 만드는 틀로써 제작되었을 수도 있다. 그러한 용도로 사용되었다면 아마 밀랍이 아니라 왁스라고 칭해야 옳을 것이다. 한글이었던 것이 영어로 변하니 무언가 있어보이지만, 사실 이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밀랍일 뿐이리라.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자연에서 벌집이나 일부 식물 따위에게서나 겨우 찾을 수 있는 밀랍이라는 물질을 인간의 힘으로 인공적으로 만들어냈다는 것에서 자연산 밀랍보다 왁스가 더욱이 대단한 물건이 아닐 수 없다는 생각도 든다. 물론 사람들은 양식보다는 자연산을 선호하나, 타인에게 유쾌한 것은 대개 내게는 불쾌하기에 어쩌면 나는 밀랍보다는 왁스가 더욱 선호되는 인간일 수도 있다. 허나 나는 분명히 왁스가 아닌 밀랍이었음을 나는 안다. 애초에 그 둘을 구분하는 의미가 있을까, 벌에 의해 만들어지는 밀랍과 인간에 의해 만들어지는 밀랍이라는 차

이가 있을 뿐인데. 애초에 밀랍이란 지방이나 다를 바 없으니, 어쩌면 나는 지금도 밀랍일지도 모르는 일이다. 허나 내 몸에 쌓인 지방은 벌이 아닌 인간이 만들어낸 지방이니 나는 지금 왁스일지도 모른다. 아니, 아마 밀랍보다는 왁스에 더욱이 가까운 존재일 것이다.

59초, 0초. 수업이 시작했다. 땅속에 머리를 묻은 타조가 다시 일어서듯 고개를 들어 올린다.

물론 교수는 아직 들어오지 않으셨다. 어쩌면 이 강의에서 가장 게으른 이는 아마 그일지도 모른다. 아니, 게으르다는 표현은 조금 적절치 않을지도 모르겠다. 우유부단하다, 애매하다, 미적지근하다. 정말로 게으른 이들은 애초에 강의에 출석조차 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는 늦게나마 출석을 하니, 참으로 애매하게 걸쳐있는 이가 아닐 수 없다. 어쩌면 이 강의에서 가장 애매한 이는 아마 그일지도 모른다.

그래, 그는 아마 하마일 것이다. 어쩌면. 아니 이것은 분명했다.

그 뒤 17초 하고도 3분 33초 (꽤 어울리는 숫자이지 않은가. 참으로 애매하다.) 가 지나고 난 뒤, 교수는 들어와 수업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물리화학이 시작했다. 이 역시 끝났다. 역시 시간은 금인 듯 하였다. 나를 흘러가는 시간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내 머리가 점차 내려가는 것이 느껴졌으니. 물론 그러한 와중에도 강의실을 옮기기 위해 걸으며 하는 사색 또한 멈추지 않고 계속 되었으니 나는 역시 밀랍이 향유고래가 채질인 듯 하였다.

점심시간. 아침에 먹은 만두가 아직 다 소화되지는 않았으나, 오늘은 어쩐지 그대들에게 식당을 소개해주고 싶어졌소.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만으로도 고생이 많을 터이니, 내 식사하는 모습이라도 부디 즐기시게나. 어쩌면 그대들도 간단한 식사나 간식 따위를 먹으며 같이 이야기를 진행해도 좋을 것이라 생각했다. 생각하오.

식당에 가면 지문을 인식할 수 있는 지문인식기가 있다. 이 지문인식기의 용도는 지문을 인식하는 것이다. 학교에 등록된 시점에서 같이 등록된 지문을 인식하여 이 학교의 학생임을 인증하고 번호표를 뽑아 지정된 식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내가 등록한 지문이 이러한 용도 말고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도 있음을 알고 있으나, 내 지문은 세상에 널린 흔하디 흔한 지문이니 상관 없다. 타인의 지문이라고 뭐 특별할 게 있겠는가. 다 똑같은 지문이지.

또한 우리 학교의 식당은 특별하여, 이 학교의 학생이 아니더라도 들어와서 돈을 내고 밥을 먹을 수 있다. 요즘 부쩍 많아지기 시작하는 키오스크라는 것을 이용해 음식을 주문 할 수 있는 것이다. 사람이 사라지고 점차 기계로 대체되는 모습이 참으로 유쾌하여.

오늘은 무엇을 먹을지 그대가 정해주겠는가? 만약 내가 평범한 학식을 먹기 원한다면 내 손가락을 두드려주시오. 돈을 내고 다른 메뉴를 먹기를 원하면 그대의 손가락을 두드려주시오. 그러면 내 그리하리라. 어쩌면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은 채 그대에게 맡긴 선택권을 다시 내게 돌려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이오. 것이다.

식사는 나름 괜찮았다. 나는 본래 먹는 속도가 느렸기에 하나하나 천천히 곹씹고 음미하고 맛

보고 즐기고 유쾌하고 유쾌하여.

아디오스.

잠시 과거의 이야기 따위를 해볼까 하오. 물론 이는 그저 혼자 즐기는 사색일 뿐이니 무시하는 것도 상책일 것이오.

인간은 필히 사회적인 동물이다. 만약 인간이라는 것의 정의가 정녕 저것 하나 뿐이라면 나는 분명 과거에는 인간이었을 것이다. 학교라는 장소는 (이 모든 학교라는 장소들 중에서 특히나 이질적인 대학교라는 장소를 제외하고 생각한다) 필히 재학중인 학생에게 ‘사회적인 활동’을 강제한다. 나는 중력이나 인력과 같이 나를 짓누르는 운명에 저항할 수 없고 할 생각도 없었기에— 그 때의 나는 꽤나 불쾌한(유쾌한) 사람이었기에 그러한 사회적인 활동에 꽤나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이다.

벗이라 부를만한 이들도 몇 있었고, 정말 놀랍게도 연인이라 부를 수 있는 이도 하나 있었다. 4월 16일, 4월 20일. 1월 7일. 연애를 시작한 날, 연인의 생일, 연애가 끝난 날. 우리는 함께 8번의 봄을 보았으며 그 중 네 번의 봄동안 연인이었다.

내 연인은 꽤나 나를 싫어하는 듯 했다. 정확히는 나를 완전히 소유하지 못했음을 싫어하는 듯 하였다. 그것을 알고 있는가? 사람은 단수가 아니다.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 복수로써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뜻이다. 나는 사서였으며, 악사였으며, 밀랍이었으며, 참치였으며, 그녀의 연인인 ‘나’였으며, 벗의 친구인 ‘나’였으며, 어머니의 아들인 ‘나’이자, 아버지의 아들인 ‘나’이자, 두 마리의 개를 산책시키는 남자가 나오기 1시간 전의 공기를 맡았던 ‘나’였으며, 나였다.

허나 그녀는 나를 그녀의 연인인 나로만 대하였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녀의 앞에 있는 것은 그녀의 연인인 나였지 다른 나가 아니었으니 말이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머리로 이해할 수 있다. 허나 공감할 수는 없다. 나라는 존재의 부정을 공감할 수 있는 이는 세상에 몇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내가 정상으로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 또한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를 긍정한다. 이러한 나조차 내 스스로를 긍정하는데, 다른 이들이라고는 오죽하겠는가. 유명한 소설이나 시의 말마따나, 참으로 비루한 인생이었다 하지 않겠는가. 그조차 긍정이니 유쾌하다.

이런, 점심시간이 끝난 듯 하다. 하지만 상관 없다. 오늘은 오전에만 수업이 있는 날이니, 오늘 수업에서 들었던 내용들만 제대로 복습하면 오늘의 공부는 끝날 것이리라.

또한 집에 가는 길도 걸음으로써 이전에 즐겼던 사색을 더욱이 즐길 수 있을 터이니 참으로 유쾌하오.

싸늘한 밤 공기가 내 뺨을 쓸고 지나가는 듯 하였다. 허나 지금은 불쾌한 태양빛이 내게 내려 쬐는 중이니 그것은 필히 착각일 것이다.

이 봄은 나에게 있어 꽤나 각별하다. 8년은 내 인생의 3분의 1, 그 이상이다. 그러한 시간을 함께 보낸 이가 내 곁을 떠나간 뒤 처음으로 맞이하는 봄일 것이다. 그녀는 나보다 나이가 많았다. 흔히 말하는 연상이라는 것일까. 이러한 말을 뱉었을 때 나이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화를 내는 그녀가 연상되는 듯 했다. 유쾌하오.

아직 마르지 않은 머리카락에서 물이 두옥, 두옥, 두옥. 허나 내 머리카락의 물기는 이미 다 마른지 오래였기에, 나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끼고 하늘을 보았다. 유쾌하게도, 오늘의 날씨는 그리 좋지 않은 편이었다. 어쩌면 비가 내릴 수도 있는 그러한 날씨. 나는 70%라는 확률을 믿었으며, 이번에는 30%가 걸린 듯 하였다.

세상에 0이나 100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에 한 없이 가까운 숫자만이 존재할 뿐이다. 만일 이 세상을 창조한 자가 있다면 그것은 필히 비틀림이라는 것을 껴이나 좋아하는 존재이리라 나는 생각했다. 0이나 100에 한 없이 가까운, 직접 입으로 말하는 것조차 무의미한 숫자들도 어디에선가는 일어나는 마당에, 30%라는 높은 확률이 걸리지 않으리라는 확신은 없었다.

이 모든 말들을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비가 오기 시작했다는 뜻이었다.

비는 물이 순환하는 과정 중 하나다. 지표에서 증발한 물은 공기 중의 먼지 등의 핵을 이용해 구름을 만들어, 내린 비는 땅 속으로 스며든다. 강이 되어 바다로 흘러가 또 다시 하늘로 올라간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순환한다. 순환하고 있다고 한다. 식물이나 벌레는 살기 위해 다른 이들을 먹으며, 죽으면 땅으로 돌아간다. 순환한다, 빙글빙글 돌며 멈추지 않는다.

그러한 순환에서 벗어난 우리는, 나는, 나였던 이들은, 나였던 것들은, 나는 도대체 어디로 가면 되는 걸까요.

사색이 스텝하오. 내 머리 위에 떨어지는 물방울의 층간소음에 괴로워하며.

집으로 돌아온 나는 머리만 보면 집을 나설 때와 꽤나 비슷한 모양새였다. 하지만 그 아래는 집을 나설 때와 매우 달랐으니, 물에 젖은 생쥐 꼬리 다름 없었다. 축축하기 그지 없고, 썩 유쾌하오.

이대로 그저 침대에 몸을 맡긴다면 기분은 좋을 것이나, 물을 잔뜩 머금은 수건이나 다름없는 나를 맡아줄 침대의 기분도 생각을 해야 하리라. 또한 내 몸에서 만들어져버린 땀에 이 비루한 몸뚱아리를 지키고 있는 백혈구들도 생각을 해야 하리라. 또한 이 비루한 몸에 들어오고자 노력하는 감기의 균이나 바이러스 따위들도 생각을 해야 하리라.

푸욱 젖은 옷은 그대로 세탁기로 직행, 자그마한 욕실에 들어가 물에 젖은 내 머리 위로 다른 형태의 물을 쏟아낸다.



본래 존재하던 순환에 과정에, 인간이라는 요소가 끼어들고 말았다. 이 물은 어쩌면 지금 강에 있었어야 할 운명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구름으로써 유유자적하니, 높다 높은 곳에서 경치를 구경하며….

인간이라는 종은 참으로 오만할 수 없었다. 겸손함을 몰랐다. 나는 오만이 싫었다. 이 세상에서 오만해도 되는 집단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만해도 되는 개인이 존재할 뿐. 그리고 개인이 하는 오만은 오만이 아닌 자신이였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겸손이였다. 그들은 겸손해서는 안된다. 많은 이들이 그들을 ‘달을 수 없는 별’로 칭하며 그의 뒤통무니 라도 따라가고자 노력한다. 허나 그들이 겸손을 택하며 스스로를 낮춘다면 그들에게 달고자 하는 이들의 노력은 그저 할만한 노력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그들은 겸손하지 않음으로써 겸손함을 알고 있다.

겸손은 미덕이나, 자신은 강함이니.

아디오스.

컴퓨터를 킨다. 만년필이나 볼펜으로 종이에 글을 쓰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컴퓨터로 글을 쓰는 것을 싫어하는 것은 아니나, 가끔은 그러한 시대에 살았다면 어땠을까 싶다. 그러한 시대에 태어나 본 적은 많으나, 정작 그러한 시대에 태어났던 나는 인간이 아닌 무언가였으니.

노트북, 나는 노트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공과 사는 구분해야 한다. 여기서 공은 공부이며, 사는 사색이다. 노트북은 오로지 공부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할 것이고, 사색은 내 안락한 방의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내 컴퓨터는 단순한 컴퓨터가 아니다. 이것은 아마 이젤 위에 올려진 캔버스이자, 책상 위에 올려진 도화지. 아직 그려지지 않은 블루 프린트. 태아의 핵산. 또한 컴퓨터이다.

또한 이는 내 직장이며, 내 집이자, 나의 고향이자, 또한 컴퓨터이다.

나의 부모이며, 형제이자, 자식이며, 또한 나다. 유쾌하오.

내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고, 컴퓨터는 그에 화답하여 글자라는 감탄사를 내게 보인다. 그 감탄사는 강조법이였으며, 변화법이였으며, 때로는 비유법이였다.

나는 그러한 감탄사들을 한데 묶어 단어를 문장으로, 문장을 문단으로, 문단을 글로, 글을 책으로, 책을 돈으로.

그렇소, 이는 내 돈벌이이자 자아의 실현이오.

슬프게도 나는 책으로 돈을 버는 내가 싫다. 허나 내 스스로 죽음을 바라지는 않기에, 먹고 살기 위해 돈을 벌어야 함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책을 쓰는 것 말고는 없기에. 내 삶에 제목을 붙여보려 해도 아무런 단락도 나오지 않는 것은 아마 이 때문이리라.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 지금 내 머리를 울리게 하는 것은 전율인지 현기증인지 피곤함인지, 문득 웃음이 나 실실 실소를 흘리는 것이 아닌가.

나는 죽기 싫다. 영원히 살고 싶다. 허나 그것이 안됨을 너무나 잘 안다. 허나 어쩌면 방법이 있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나는 글을 쓴다. 내가 죽기 전 즈음에 인간이 스스로의 운명을 극복하고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완벽한 기술 (어쩌면 이것이 인간이 순환이라는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시발점이 될 것일지도 모르겠다.) 이 개발되어 내가 영생을 살게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내 뇌를 기계 장치나 로봇 따위에 이식해 (그것이 정녕 '나'라는 개체가 맞는지에 대한 사색은 넘긴다. 이를 포함하였을 때의 사색은 1시간을 족히 넘기기에.) 새로운 육체로 살게 될 수도 있는 법이다.

나는 글을 쓴다. 그 글들은 아마 내 인생이라는 항해의 흔적, 그 흔적을 본뜬 조형물에 가까울 것이다. 그리 만들어진 조형물들은 내 항해가 어떤 형태를 띠고 있었느냐에 따라 모양이 변하겠지. 더 아름답거나 더 추하거나, 더욱이 유쾌하거나 더욱이 불쾌하거나. 나는 그 조형물을 타인에게 건네 타인의 감상을 받는다. 그리고 내게 조형물을 건네받은 타인은 그 조형물의 생김새를 보고, 마음에 들면 그것을 자신의 항해에 추가할 것이다. 선택권을 그들에게 넘김으로써 나는 조형물으로써 그들의 삶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면 나는 타인의 세계에 새겨진 조형물으로써 영생을 살게 되는 것이다. 프랑시스 잠, 라이너 마리아 릴케, 앙투안 마리 장바티스트 로제 드 생텍쥐페리가 그랬듯. 나 또한 타인의 세계에 새겨진 조형물으로써, 책이라는 형태를 통해 영생을 살게 되는 것이다.

내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강하게, 또는 약하게, 또는 흐느적대며 굽이굽이치게. 그것은 모두 내 영생을 바라는 나의 소망이자 다짐이다.

동시에 내가 쓴 책을 누군가 읽어 주었으면 하는 소망이며, 내 생각을 다른 이들이 알아줄 수 있을까 하는 불안이다.

사색이 길었고, 다음날이 되었던 듯하오.

찬장에 있는 스펀지를 꺼내어 지글지글 구워, 김치찌개를 끓이고자 준비해둔 묵은지가 있으니 주욱 찢어 흰 쌀밥 위에 올린다. 비를 맞으며 왔으나 몸 상태는 괜찮았지만, 그러한 경험을 한 직후에 굳이 걸어서 갈 정도로 미련한 인간은 아닐 지도 모른다.

새벽 내내 진행되었던 사색에 눈이 감겨온다. 입 안에 가득 찹히는 음식들이 내가 살아있음을 알려주는 듯 하였다. 음식이라, 나는 음식을 먹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식사를 할 시간에 사색을 하는 것을 즐기기에. 또한 그것과는 별개로 입이 상당히 짧기에. 허나 동시에 음식을 먹는 순간만큼은, 내 입에서 찹히는 음식들의 삶이 내 안으로 흘러들어오는 고양감에 소름이 돋고마는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등갈비를 좋아했다. 맛도 맛있지만 먹어지기 위해 키워진 돼지의 삶 또한 아득

하게 느껴지는 듯 하여. 내가 자주 가던 ‘맛집’이라는 이름의 맛집에 작별을. 등갈비가 참으로 맛있었다 하여.

나는 어찌 살아가게 될 것인가. 먹고 먹히는 것이 순환이라면, 먹기만 하고 먹히지는 않는 인간은 참으로 안타까운 존재가 아닐 수 없다. 순환에서 벗어나버린 우리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가야 할 곳을 잃어버린 우리였으나, ‘나’라는 개인으로써는 가야 할 곳이 정해져 있었다. 택시를 타고 가야 하는지 아니면 버스를 타고 가야 하는지 고민이었으나, 목적지 만큼은 확실하게 정해져 있었으니.

어쩌면 날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하늘을 날 수 있었던 적도 몇 번인가 있었기에. 하지만 지금은 불가능하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올바르겠지.

반짝하고, 택시를 타야 하겠다. 어쩌면 이것은 영감이거나, 운명이라고 불러야 하는 종류의 무언가였다.

가자구나. 아마 7,500원 정도가 나오리라. 빅데이터라 함은 이런 것이리라.

머리를 말리고, 옷을 갖춰 입는다. 오늘은 사색이 짧았다. 오늘의 나는 그리 많지 않았으니. 사색또한 여실히 짧지 않았겠는가, 하여금.

눈 밑 다크서클이 진해지는 것이 느껴진다. 아마 이대로 계속 진해진다면 내 인종이 변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였다. 정신병자의 헛소리라고 생각되는가? 세상에 절대란 없다. 내가 다음 날에 일어났을 때 인종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는 것이다. 세상에 절대란 없으니, 0과 100은 존재하지 않으니. 그와 한 없이 가까운 숫자만이 존재할 뿐. 그러니 내가 잠에서 깨어나 인종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는 것이다. 혹은 내가 지금의 인종이 된 꿈을 꾸고 있는 것일수도 있으니. 나는 본디 다른 인종이었을수도 있는 것이다. 이것은 그저 꿈일 수도 있으며..., 아아.

이 길은 택시가 많이 다니지 않는다. 근처에 기차역이 있기 때문일까. 대부분의 택시는 그곳에서 멈춰 이 곳까지 오지 않는 것이다. 요즘은 어플로 택시를 부르는 방법도 있으나, 그것은 내게 있어 필히 불쾌하리라. 굳이 사용하고 싶지 않을 따름이다.

강조되고 반복된 사색인지라. 택시에 올라탄 뒤에 습관적으로 벨트를 매만졌다.

벨트. 나는 벨트를 매는 것을 좋아한다. 정장이나 교복, 혹은 인피와 같이 나를 단단하게 억죄는 감각이 마음에 든다. 과연 이 벨트를 매어도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이대로 차가 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날아가지 않는 것일까.

글쎄, 아마 곧 확인할 수 있을 듯 싶었다. 저 앞에서 달려오는 차는—

아, 하고. 아, 하여.

문득, 시야가 붕 뜨는 것이 느껴졌다. 나는 지금 하늘에 서 있었다. 뚜벅뚜벅 걷는 소리가 사방에 울려 퍼졌다. 어쩌면 나의 인피는 나를 얹매는 것에 썩 적합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나는 이미 나라는 육신이 얹매고 있는 상태이니, 어쩌면 내 어쨌죽지에도 인공의 날개가 돌아난 것일 수도 있었다. 아니면 이제서야 인간이 되는 꿈에서 깨어난 것일지도.

구름은 유유자적하니 떠다니며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았으나, 어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리. 문득 내 곁을 다른 파편들이 비상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는 손이 닿을 것 같아 손을 뻗어 보지만, 어쩐지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어쩌면 우리는 이 파편과 같을지도 몰랐다. 이 파편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어찌하여 쪼개져 파편이 된 것인지 나는 모른다. 어쩌면 앞에도 무시하는 것일 수 있다. 허나 무언가 거대한 것의 일부라는 점에서 우리는 이 파편과 꽤나 닮아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 파편은 그저 이대로 비상할 수도, 아니면 다시 하나가 되어 거대한 무언가를 이룰 수도 있음이라. 혹은 그 자체로 하나의 아름다운 조각이 될 수도 있으며, 그 조각조차 또 다른 파편이 되어 내 곁을 비상할 수도 있으리라.

epoché, 판단을 중지하라, 생각을 멈추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자신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아라, 그러면 보이리라. 허나 본 순간 그것을 왜 보고자 하였는지 잊으리라, 보려 한 이유를 잊기에 비극이자 고통이다.

나는 존재했고, 그렇기에 생각했다. 과연 내가 존재하는 것이 맞는가? 내가 존재하는 것이 맞다면 그것은 곧 내가 생각을 한다는 증거일 것이다. 하지만 내가 하고 있는 것이 과연 생각이 맞을까? 만약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생각이 맞다면 그것은 곧 내가 존재한다는 증거일 것이다. 순환논법,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 오류, 오류, 오류, 시간은 금이다.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황금도 금이니 시간을 돌같이 바라보아야 한다.

나는 작은 존재다. 허나 느낄 수 있다. 이것은 크나큰 흐름이자, 곧 순환이리라.

내가 책을 쓰면, 그대는 책을 읽겠죠. 당신은 이 책을 보고 무언가를 배울 것이고, 그것이 내게는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어쩌면 저희도 순환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자연적인 순환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 또한 저희로써는 보지 못하는 거대한 순환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순환이 순환하는 순환. 소용돌이가 소용돌이 치는 소용돌이. 그랬었다. 아주 매력적인 가설이었다. 적어도 내게 있어서는 매우 흥미로웠다.

당신에게 감사하오, 새로운 사실을 또 하나 배웠으니. 당신과 함께 있는 순간이 내게는 곧 공부이니.

문득 나는 어느새 나를 짓누르는 운명이 더욱 거세졌다는 것을 느꼈다. 동시에 내가 내 생각보다 높은 곳에 올라와 있음을 깨달았다. 허나 이는 비상이 아닌 추락이리라. 내 스스로 날아오른 것이 아닌, 그저 무언가가 나를 세계 처 튕겨낸 것에 불과했으리라. 이것은 내게 내려진 시련일까, 아니면 가속도라는 것일까. 문득 오름이 있으면 내림도 있어야 함을 깨달았다.

마르지 않은 머리카락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듯, 나 또한 천천히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이제는 잠에서 깬 시간이었다.

이는 끝은 아니리라.